

숭고한 희생·장한 삶...대한민국 '등불'

제 38회 光日報훈대상 영광의 얼굴들

'제38회 광일보훈대상'(光日報勳大賞) 시상식이 안중현 광주지방보훈청장, 강운태 광주시장, 유재철 광주일보 사장을 비롯해 시민·가족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3일 오후 3시30분 정부광주합동청사 2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조국을 위해 희생한 영령들의 유족과 전·공상군경의 장한 삶을 되새기기 위한 이날 행사에서는 김생현(공상군경 6급·65·광주시 광산구 산월동)씨, 강정례(전상군경 유족 처·77·광주시 서구 화정4동)씨, 박순금(순직군경 유족 처·73·광주시)

남구 백운동)씨, 노창영(전몰군경 유족 부·69·광주시 동구 계립2동)씨, 이용주(무공화랑 수훈·84·광주시 광산구 송정2동)씨 등 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는다. '광일보훈대상'은 호국·보훈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보훈가족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 광주일보사가 제정했다. 수상자들은 다음과 같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공상군경 6급 김생현씨

김생현(65)씨는 지난 1969년부터 35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재직했으며, 현재 광주 정광고등학교 배움터 지킴이로 활동, 학교폭력 등 범죄를 예방하고 있다.

김씨는 경찰로 재직 당시 불법집회를

35년간 경찰공무원 혼신후 학교 배움터 지킴이로

엄단하고 시민들의 분실물들을 찾아주는 등 성실한 근무를 해왔으며, 대한민국 상이国民회광주시지부 광산구지회 소속 회원으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동료 회원에게 위문금을 전달하는 등 국가유공자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을 발휘, 공명정대한 업무추진에 기여한 공로로 경찰공무원 재직 중 옥로근정훈장(대통령)과 경찰청장 표창, 전남도지사 표창, 내무부장관 표창 등 모두 26회에 걸쳐 수상했다.



전상군경 유족 처 강정례씨

강정례(77)씨는 1952년 11월30일 육군에 입대해 1953년 7월17일 강원도 화천군에서 전투중 적탄이 경추부를 관통하는 부상을 입고 전신이 마비돼 일등 병으로 제대한 전상군경 김재우씨의 아내다.

불편한 남편 뒷바라지에 시어머니 극진 봉양 '효부'

남편의 몸이 불편하다는 사실을 알면 서도 1957년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한 뒤 남편의 정신적·신체적 지주가 돼 헌신적으로 간호했다.

또 시어머니가 96세의 나이로 별세할 때까지 정성스레 간호해 주민들로부터 '효부'라고 칭찬이 자자했다. 강씨는 1971년 광산군 마륵동에 자활촌(현 상무용사촌특별지회)을 설립하고 자활촌 부녀회장으로 각계각층에서 지원금을 모금해 양돈사업을 진행, 자립마을로 성공시켰다.



순직군경 유족 처 박순금씨

박순금(73)씨는 공군에 복무하고 제대한 뒤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다 1988년 1월10일 과로가 불러온 뇌출혈로 사망한 순직군경 유묘열씨의 아내다. 남편이 사망한 뒤 박씨는 집안의 가장으로 이불가·목욕탕 청소 등 닥치는 대로 일

남편 사망후 2남 1녀 허름히 키워낸 집안의 가장

을 하면서 2남1녀를 허름하게 성장시켰다. 현재는 박씨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보훈가족들의 복리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해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주시지부 남구지회장으로 일하고 있다.

박씨는 매월 회원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고 자연보호캠페인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엠마우스복지관에서 끊임없이 봉사를 하는 등 봉사활동에도 앞장서 보훈단체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



전몰군경 유족 부 노창영씨

노창영(69)씨는 1998년 3월13일 의무경찰로 복무중 국가안전기획부 광주지부 시설경비 임무를 수행하다 기동순찰버스 화재로 최루탄 150발이 폭발하면서 제대 35일을 남겨두고 순직한 노현기씨의 아버지다.

버스화재로 아들 잃고 전몰군경유족회 활동 앞장

노씨는 전몰군경유족회 광주시지부 동구지회장을 맡으면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회원들을 매월 선정, 위로금을 전달했다. 광주시 동구 바르게살기협의회 이사 등을 역임하면서 부산 남구, 경남 하동

군, 포항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상호 교환 방문과 화합의 행사를 주선했다. 또 소년소녀 가장 10명과 운영위원회의 자매결연을 맺었으며, 천애양로원과 이일성로원에 명절 때마다 기부를 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왔다.



무공수훈 이용주씨

이용주(84)씨는 1949년 2월15일부터 장흥경찰서 특공대에서 근무, 6·25 전쟁 당시 보성·완도·장흥·강진·영암 등지에서 일어난 전투에서 수백명의 북한군을 사살했다.

또 수차례 기습작전을 통해 고령자와

장흥경찰서 특공대 근무중 혁혁한 전공 올려

부녀자 등 양민 수백명을 구출했고, 딜프 총과 쌍안경을 노획한 공으로 화랑무공훈장·육조근정훈장·대통령 표창 등을 받았다.

이씨는 1986년 11월23일 완도 격전지 현장 부지 600평을 사 충훈탑을 세우고



광주 소태역서도 벌교·고흥·장흥 방면

광주 소태역서도

시외버스 탈 수 있다

내달 정류장 설치

광주도시철도 소태역에 시외버스 정류장이 설치된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12일 "최근 금호·광우·동방고속 3사와 함께 다음달 1일부터 소태역 지상 대합실에 시외버스 정류장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승객이 소태역에서 바로 벌교·고흥·장흥·보성 방면으로 갈 수 있게 됐다. 또 소태역 내에 무인매표기를 비롯한 다양한 편의시설을 뛰어와 시외버스 정류장의 가장 큰 문제점인 비좁은 공간과 노후 시설에 따른 승객 불편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광주도시철도 관계자는 "도시철도를 통해 시내·외 버스, 항공, KTX까지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환승 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이용 시민들의 편의가 크게 증진돼 이용객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급속 냉동난자로 흑우 복제 제주대 연구팀... 첫 상용화

복제용 난자를 영하 196°C에서 급속 냉각시켰다가 원하는 시기에 이를 해동시켜 언제든지 복제동물을 만들 수 있는 생명공학기술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상용화됐다. 연구팀은 이런 기술로 3년 전에 도축된 제주 흑우를 복제시키는 데 성공했다.

제주대 줄기세포연구센터 박세필 교수와 (주)미래생명공학연구소(소장 김운영)는 우수한 동물자원이 사라진다고 해도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이를 대량으로 복제생산할 수 있는 '초급속 냉·해동 신기술'을 개발, 이를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연구의 핵심은 기존의 '체세포 혼합 이식' 복제기술에 접목시킨 초급속 냉·해동 신기술이다. 복제 대상 동물에서 떼어낸 체세포 핵을 난자에 이식하고 이를 초급속으로 영하 196°C에서 얼렸다가 몇 년이 지난 후라도 필요할 때에 해동시켜 복제동물을 만들어내는 방식이다.

연구팀은 이 기술을 이용해 2008년 당시 14세의 노령으로 도축된 제주 흑우 씨암소를 복제해냄으로써 상용화 가능성을 입증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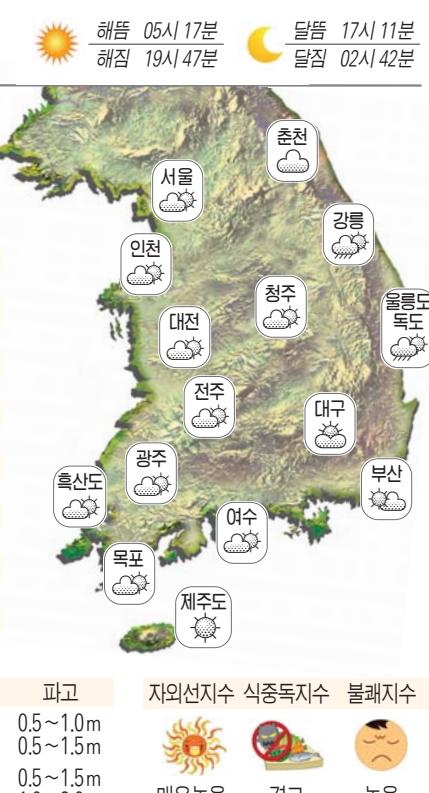
오늘 날씨

자외선 강해요

오전에는 가끔 구름 많았으나, 오후에는 대체로 맑겠다.

광 주	구름점차적어짐	18/28°C
목 포	구름점차적어짐	16/23°C
여 수	구름점차적어짐	18/26°C
나 주	구름점차적어짐	17/28°C
완 랑	구름점차적어짐	16/25°C
구 레	구름점차적어짐	17/28°C
강 전	구름점차적어짐	16/25°C
해 남	구름점차적어짐	16/26°C
장 흥	구름점차적어짐	16/26°C
순 천	구름점차적어짐	18/28°C
영 광	구름점차적어짐	16/24°C
전 도	구름점차적어짐	16/26°C
전 주	구름점차적어짐	18/27°C
군 산	구름점차적어짐	17/24°C
남 원	구름점차적어짐	17/27°C
흑 산	구름점차적어짐	15/19°C

해금 05시 17분 해진 19시 47분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4(화) 15(수) 16(목) 17(금) 18(토) 19(일)

날씨 날씨 날씨 날씨 날씨 날씨

최저/최고 17/29 18/28 18/26 19/28 19/29 19/29

전남교육청 "지역 교육청 매년 평가"

3년 주기서 변경...평가 항목은 20개로 줄여

전남도 교육청은 12일 "그동안 3년 주기로 해오던 지역 교육청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되, 평가항목을 크게 줄여 업무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3년 주기로 하던 평가는 올해부터 매년 실시해 평가의 실현성을 높이기로 했다.

지난해까지 교육 주요시책 추진실적 등 무려 46개에 달한 평가지표는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국립공원의 야생화

호리병 닮은 열매...3가지 색깔 병꽃나무

(37) 붉은병꽃나무

붉은병꽃나무는 높이 3~6m로 자라는 인동과의 낙엽 활엽 관목이다.

붉은병꽃나무는 노란색에서 붉은색으로 서서히 변하는 병꽃나무와 달리, 진한 분홍색 꽃을 피운다.

꽃봉오리나 벌어지기 전 열매의 모습이 호리병을 닮은 병꽃나무

무는 꽃색에 따라 흰병꽃나무, 삼색병꽃나무, 붉은병꽃나무 등으로 구분된다.

〈박성배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 과장〉

기간: 2011년 6월 1일~8월 31일 까지

"Hot"한 여름을 "Cool"하게 날려줄
Beer Party!
샐러드 뷔페 이용시 맥주 및 음료가 무제한 공짜!! ₩27,500(세금포함)

행사장소: 6F SKY LOUNGE 상기 이벤트는 매일 오후 6시부터 12시 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예약문의 : TEL. 062)228-8000 / 062)221-4130

선배합격자가 말한다!

공무원 시험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7급 공무원 시험 [국가직] 최대 합격! 분명한 강좌!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 학습증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려보십시오

7급 종합반	9급 종합반	법원서기보	법원법무전문	법원 강력대
--------	--------	-------	--------	--------